metro

ENTERTAINMENT p/18
연호인 제천 겨울왕국

"출산 연기하다 혼절할 뻔

metro

메트로 2014년 1월 21일 화요일 [illegible] www.metroseoul.co.kr

'조국의 적' 이 된 빅토르 안

1월 대한민국 '카드 패닉'

고개 숙인 '신용카드'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심재오(오른쪽부터)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이 3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파문 확산 속 금융수장 책임론 KB금융·은행·카드 경영진 일괄사표

카드업계 개인정보 유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KB금융 은행 카드 경영진도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어 롯데카드 역시 박상훈 사장 등 경영진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여기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당국 수장 중 누군가는 물러나야 한다는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어 사퇴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고객정보 유출 카드 3사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언론과 세간의 이목은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가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 처벌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유출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정보 유출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된 것이 기폭제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간담회 당시 이번 정보유출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3사 대표들은 모두 대답을 회피했다.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은 모두 책임은 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냈을 뿐이다.

그러나 책임론의 파편은 바로 금융당국으로 튀었다.

카드사 개인 정보유출와 관련 금감원 카드 검사국장이 이날 오전 전격 교체된 것. 금감원은 조성목 저축은행검사1국장을 새로운 카드 검사국장으로 임명하고 류찬우 국장을 저축은행검사1국장으로 발령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여론이 안좋아지면서 현상태를 좌시할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내린 고육책으로 보인다.

◆농협·롯데카드 사장도 사퇴

오후에는 손경익 NH농협카드 사장이 이번 카드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으며 김주하 농협은행장이 이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뒤이어 KB금융의 은행, 카드 등 계열사 경영진과 롯데카드 경영진도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당국 내부에서 동양사태와 이번 카드사태로 금융권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고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 중 누구라도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며 시퇴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금융업의 근간이 무너질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며 "그동안 내려졌던 형식적인 제재 조치가 아닌 누군가는 현직에 사임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창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어린 생명 앗아간 송도 키즈파크 놀이기구

알고보니 무허가 영업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가 주저앉아 어린이 1명이 사망한 인천 송도컨벤시아 키즈파크가 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운영업체 H사는 지난달 13일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공기 주입 미끄럼틀 형태의 에어바운스 등 20여 종의 놀이기구를 갖추고 8000㎡ 규모의 키즈파크를 개장했다.

인천경제청은 "유원시설업의 경우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시한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결과를 첨부해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업체는 영업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 업체의 영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장 한 달이 지나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서야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에 착수해 늑장 대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적정 인원보다 많은 어린이들을 에어바운스 위에 올라가게 방치함으로써 에어바운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중 H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인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용성기자 [illegible]

'김정은 홍보대사' 로드먼

거지 수첩
조 선 미
〈글로벌부 기자〉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최근 알코올 중독 재활원에 입소했다. '농구대사'로 북한을 방문한 뒤 심적으로 지치고 힘들어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로드먼의 에이전트는 사람들이 그의 행보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것에 대해 로드먼이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

로드먼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일까. 사람들이 그의 방북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정치적 수확을 기대했기 때문일까. 상상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로드먼은 농구를 통한 문화 교류를 통해 북한을 국제 무대로 끌어내기 위해 방북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일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정은의 생일 파티에서 축하 노래를 부르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에게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며 북한을 옹호했던 로드먼. 그의 모습은 농구대사라기보다는 북한 홍보대사에 가깝다.

선수 은퇴 후 수입이 변변찮고 알코올 중독 문제도 가지고 있는 로드먼이 북한에서 대가를 받고 선전 행위에 동원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로드먼은 북한에서 '친구 김정은'을 만나 귀빈 대접을 받으며 호의호식했다. 하지만 북한과 맞물린 민감한 이슈들을 그에게 들이밀고 국제사회가 집중 공세를 퍼부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세계 평화를 외치며 명예로운 농구대사를 자처한 로드먼은 결국 자신의 얕은 꾀에 빠져 골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아닐까.

퇴근길에도 '눈폭탄' 20일 오후 서울 곳곳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에 이번주 중반까지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리비아 한인 표적 피랍

정체불명 무장 괴한들, 차량 강제로 정차시킨 뒤 코트라 무역관장만 납치

리비아에서 근무하는 한석우(39) 코트라 트리폴리 무역관장이 19일(현지시간) 퇴근길에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무장 괴한들에게 피랍됐다.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피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외교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한 관장은 19일 오후 5시30분(한국시간 20일 오전 1시30분)께 퇴근하던 중 트리폴리 시내에서 개인 화기 등으로 무장한 괴한 4명에 의해 납치됐다.

한 관장은 피랍 당시 이라크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있었고, 괴한들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한 관장이 탑승한 차량을 추월해 앞을 막고 강제로 정차시킨 뒤 한 관장을 납치했다. 이들은 운전사는 두고 한 관장만 자신들의 차량에 태운 뒤 서쪽으로 도주했다.

한 관장의 납치 사실이 전해진 것은 이라크인 운전사가 사건 발생 직후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에 피랍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은 즉각 리비아 외교부와 국방부, 정보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지역 민병대 등에 진속히 피랍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안전한 석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 한 관장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납치범과의 접촉이나 납치를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주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 부처와 코트라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설치했다.

정부는 납치범들이 한 관장을 특정해서 미리 피랍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납치세력이 알카에다 세력과 연계된 것이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확인된 것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 리비아 여행금지 권고

이와 함께 외교부는 리비아에 여행금지를 권고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리비아에는 551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김도훈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부채춤 배우는 박 대통령 19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슬콜레센터에서 한국 전통 예술 문화를 소개하는 '코리아 판타지' 공연을 관람한 뒤 부채춤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북 평화공세 대응책 등 논의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0일 한국을 방문했다.

번스 부장관은 21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규현 외교부 1차관 등 우리 외교안보부처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국방위원회의 소위 '중대 제안'을 통해 내달 시작할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번스 부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된 가운데 한·미·일 3각 협력 복원 차원에서 한·일 간 중재 외교에도 나선다. /[illegible] 기자

주민번호 8월부터 함부로 수집 못한다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0일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의 도입이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예외 규정을 뒀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접근 권한과 출입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선한 기자

사법연수생 취업률 3년째 50% 이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3기 연수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군 복무 예정자를 제외한 43기 연수생 607명 중 284명만 수료 후 직장을 정했다. 취업률은 46.8%에 그쳤다. 연수생의 취업률이 50%를 밑돈 것은 2012년 41기 이후 3년째다.

취업률은 2011년 56.1%에서 2012년 49.9%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46.8%로 올해와 비슷했다.

군 입대를 앞둔 179명을 제외한 43기 연수생의 진로는 변호사가 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07명이 로펌행을 택했다.

또 46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을, 40명이 검사를 각각 지원했다. /[illegible] 기자

빈자리 많은 수료식 2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3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착석하는 수료생들 사이로 텅 빈 자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입 나온 오리 20일 서울 청계천에서 오리 한 쌍이 노닐고 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림저수지에서 폐사한 야생오리 사체를 수거해 정밀분석한 결과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창오리도 AI 전국 확산 우려

고병원성 가능성 커… 전국 철새도래지 집중관리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원인이 '야생 철새 연 가창오리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국이 AI 감염권으로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전 "최근 AI 발생 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17일 최초 발병지인 전북 고창 씨오리 농장 인근 저수지에서 수거한 야생 철새 폐사체에 대한 검사 결과 H5N8형 AI로 확인됐다"며 "고창 및 부안에서 발생한 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AI는 야생 철새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철새가 AI의 발병원으로 밝혀지면서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 방역이 AI 확산 방지의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전국의 주요 철새 도래지는 14개 시·도에 총 37곳이 있다. 서울에는 강서지구의 중랑천 등 2곳이 있으며 부산·대구·인천·울산·경북 등에 각 1곳이 있다.

철새 도래지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과 충남으로 전남에는 해남고천암·주암댐·순천만·영산강·영암호·대동저수지 등 6곳이, 충남에도 금강하구·천수만·풍서천·병천천·곡교천·예산충의대교 등 6곳이다.

AI 발병지인 전북에는 금강하구둑·만경강·동림저수지 등 3곳이 있고, 경남에는 주남저수지·창녕우포·양산발생지·장척저수지 등 4곳이 철새도래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철새도래지 37곳과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과 방역 활동을 강화하도록 전국 지자체와 농협 공동방제단·가축위생방역본부에 지시했다. 또 애초 1~2월 중 1만건가량 시행할 예정이던 야생 조류 분변 수거 검사를 1만7000건 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남북 지역에 발동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은 예정대로 20일 자정을 기해 해제했다.

한편 환경부는 가창오리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시베리아 동부·사할린 북부·캄차카반도 등에 분포하는 가창오리는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준기자 m'jun@metroseoul.co.kr

'공정위 조사방해' 재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받았던 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 3곳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기업 3곳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20일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와 LG전자·SK C&C의 임직원 1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를 접수한 고검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를 다시 해보도록 지시하는 절차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11월 공정위 공무원들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 등 3개 업체의 임직원 1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각각 8500만~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법리 검토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유다혜기자 yd@metroseoul.co.kr

웃통 벗은 어린이 · 온천하는 원숭이 대한(大寒)인 20일 일본 도쿄의 한 유치원 어린이들이 웃옷을 벗고 놀이터에서 운동을 한 뒤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다(왼쪽). 절기상 가장 추운 날인 이날 일본 어린이들은 추위를 이겨내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웃옷을 입지 않은 채 밖에서 운동을 하거나 뛰어논다. 같은 날 중부 야마노치의 온천에서는 '스노우 몽키'로 알려진 일본 원숭이들이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근 채 쉼을 고르고 있다. /AFP 뉴시스·연합뉴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장애인학급 131개 신설 등 경기교육청 특수교육 확대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올 한 해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등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하는 내용은 ▲김포특수학교 개교 ▲특수학급 131학급 신설 전공과 10학급 신증설 ▲경기특수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만 9세 이하 장애 아동 치료 지원금 확대 ▲방과후학교 전자카드 도입 ▲장애 학생 학교 내 일자리 확대 등이다.

동물등록제 궁금해요

Q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 등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동물 등록은 꼭 해야 하는지, 반드시 체내 이식장치만 가능한지요?

A 2014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드시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은 적용에서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체내) 무선식별장치, 외장형(체외)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식별표 부착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의 '동물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제공

설 연휴 종합상황실 가동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성덕주)는 설을 맞아 시민들의 급수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설 연휴인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나흘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사전 준비 단계로 상수도 시설물 사전점검 정비를 마고 설 연휴 동안 본부 및 산하사업소(정수장·수질연구소·지역사업소)에 총 18개 반을 구성,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직원 1076명이 교대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시민 급수 관련 불편 사항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종합상황실 운영 기간 동안 수질오염 사고 대비를 위한 취수원 상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하루 1회씩 하던 상수원 수질검사를 하루 2회로 확대하는 한편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도 4시간마다 하던 것을 2시간 간격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급수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급수 관련 민원은 국번 없이 121번으로 전화하면 해당 부서별로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고 시간제로 급수하는 지역에는 가압장의 운전 시간을 최대한 연장해 시간제 급수에 따른 급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기온이 영하 5도 이하가 지속될 경우 계량기 동파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시설물 동결 동파 예방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에코델타시티 사업 축소되나

재무타당성 검증용역 논란…부산시 "수익규모 재검토하는 것일 뿐"

친환경 생태도시를 꿈꾸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재무 타당성 검증 용역 발주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취소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부산시는 수익 규모를 검증하는 것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토연구원에 에코델타시티 재무적 타당성 검증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번 용역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에코델타시티의 사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자 부산시가 정부에 요청해 이뤄졌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 등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수익 규모가 불변가격 기준 79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3600억원가량 적은 4300억원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현재 일부 보상이 완료되고 실시설계를 거의 확정짓는 단계에서 수익성 검토 용역이 별개로 발주돼자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은 용역 결과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투자 시기가 조정되면 혼란이 우려된다며 서부산 개발계획의 핵심인 에코델타시티가 논란에 휘말리면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의 전제 틀이 흔들린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번 용역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산시 국제물류도시개발단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수익성에 영향을 줄 만한 주거 수요나 주택용지 측정 방법을 재검토해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지, 사업 축소나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4월 초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철새 탐조대 입구에 설치된 소독 발판 최근 전북 고창 씨오리 농장 인근 저수지에서 폐사한 야생 오리 떼(철새)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0일 철새 도래지인 경남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 탐조대 입구에 소독 발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승무원 미리 체험하세요

에어부산 대학생에 눈높이 직무교육

에어부산(대표 김태근)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꿈의 활주로 프로젝트의 범위를 넓혀 올해부터 대학생들에게 사전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주인공은 20일부터 23일까지 에어부산 승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진행되는 '드림 챌린저-입문과정'에 참여하는 대학생 20명이다. 이 과정은 항공사 캐빈승무원을 꿈꾸는 대학생에게 신입 캐빈승무원 직무교육과정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에어부산 신입 캐빈승무원들이 입사 후 40여 일 동안 받는 직무 교육과정 중 일부 과정을 제외한 전 과정을 대학생 눈높이에 맞게 집약해 입문 기초, 기본,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4일씩 네차례(1·2·4·5월)에 걸쳐 무료로 제공한다.

영남 지역 소재 대학(항공·관광 관련 학과) 학교장 추천자 중에 선발된 참가자들은 외국어·서비스·기내방송·이미지 메이킹·안전교육 등의 사전 직무 교육을 통해 캐빈승무원에 대한 업무 이해도 향상은 물론 항공사 업무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심하균기자 hk@metroseoul.co.kr

전동차 연기…승객 60명 대피

20일 오전 6시10분께 부산 서구 토성동 부산도시철도 1호선 토성역에서 신평행 1031열차의 6호차 하부에 연기가 발생해 승객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기관사는 열차 하부에서 연기가 나자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승객 60여 명을 하차시켰다. 다행히 연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인명 피해와 혼란은 없었다고 부산교통공사는 밝혔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3분간 지연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열차 하부의 냉각장치 송풍기 모터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열차를 신평차량기지로 옮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10월 2일 개막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최 일정이 확정됐다.

BIFF조직위원회는 2014년 영화제는 오는 10월 2일 개막, 같은 달 11일까지 10일 일정으로 연다고 20일 밝혔다.

아시아필름마켓 일정은 10월 5~8일로 확정됐다.

이용관 BIFF 집행위원장은 "2년 연속 관객 20만 명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올해도 명실공히 아시아 최대의 영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관객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부산항 현주소 세미나

급변하는 해운항만 시장 동향과 부산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1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BPA 28층 대회의실에서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항 현주소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따른 부산항의 영향과 글로벌 해운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부산항을 이용하는 업·단체와 관련 기관 등이 공유하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일 KMI 연구위원은 '글로벌 해운 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장형탁 BPA 마케팅팀 차장은 '동북아 항만 정책 변화와 부산항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신진선 BPA 글로벌마케팅 TF장은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P3 네트워크 서비스 현황과 현대상선 등이 속한 G6 얼라이언스(Alliance) 서비스 분석 등을 중심으로 '얼라이언스 체제 확대와 부산항 영향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P3는 세계 1~3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와 MSC, CMA-CGM 등이 올해부터 운영하는 공동 선대다. G6는 현대상선과 APL, MOL, 하팍로이드, NYK, OOCL 등 6개 선사가 참여하는 공동 선대다.

친절 서비스 강화하자" '120 데이' 기념행사 부산시 120바로콜센터는 지난 20일 오후 시청 2층 콜센터 사무실 앞에서 '120 데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 감동·정확·친절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직원들의 결의를 다지고 콜센터 전문 교육기관과 상담 품질 향상 협약식을 체결했다.

유물 900점 보러오세요

시립박물관 동래관 전시관 새단장… 오늘 공개

부산시립박물관 전시관이 새롭게 단장하고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시립박물관은 지난해 8월 착수한 제1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관람객에게 부산 유물과 연구 성과를 반영해 첫선을 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새 단장을 계기로 전시관 이름을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명칭으로 바꿨다. 종전 제1전시관은 동래관, 제2전시관은 부산관으로 새 문패를 달았다.

동래관은 구석기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부산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한다. 전시 유물이 구석기·신석기시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동래 주변 유적에서 출토된 것이고 동래라는 명칭이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사용돼 조선시대까지 부산의 중심이었던 점을 감안해 동래관으로 이름 붙였다.

동래관에는 지난 10년간 부산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유물 90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중 약 80%는 이번에 처음 공개된다. 향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될 부산관은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근현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한다.

부산(釜山)이라는 지명이 조선시대 때 붙여진 이후 근현대를 거치면서 사용돼 부산관으로 명명했다.

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이번에는 동래관만 개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부산관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부산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다양하게 선보일 동래관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학교주변 유해업소 4133곳…5년새 12% 증가

유흥·단란주점 44% 가장 많아… 호텔·여관 뒤이어

부산지역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413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김길용 교육위원은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4133개로, 2009년(3696개) 대비 11.8%(437개) 늘어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유흥·단란주점이 전체의 44.1%인 1821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호텔·여관(794곳), 노래연습장(771곳), 당구장(422곳), PC방(92곳)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가 8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하구(509곳), 동래구(502곳), 사상구(392곳), 북구(308곳) 순이다.

전체 유해업소 가운데 불법 업소는 79개로 2009년 32개보다 2.5배 늘어났다.

이들 불법 업소 중에는 키스방, 성인용품 판매점, 전화방, 변태 마사지업소 등 유사 성매매영업을 하는 신종 퇴폐업소가 절반인 42곳을 차지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유해업소 해제율은 최근 3년간 56.6%로 나타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해 김 의원은 우려를 표시했다.

폐기물 수집 장소(2곳), 무도학원 무도장(18곳)의 경우 최근 3년간 100% 유해업소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약류 액화가스 제조 저장소(10곳)는 88.9%, 호텔·여관·여인숙(110곳)은 77.5%가 해제됐다. /연합뉴스

국제제과제빵커피직업전문학교 호두파이 만들기 행사

국제제과제빵커피직업전문학교(원장 장은숙)는 오는 28일 '명절맞이 호두파이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다.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7시로 3명 이상 수업이 진행된다.

제품은 타르트 2호 팬(지름 18cm) 1개 이쁘게 포장까지이며, 제품 시식은 따로 준비돼 있다. 수강료는 5만 원.(예약은 3일 전까지 가능.)

문의 051)464-8333

지역 대표 도서관 건립 추진

부산시는 부산의 대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4750만원을 투입해 '부산도서관(가칭)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말 도서관 건립 용역 공고를 내고 2월 말까지 입찰을 통해 적격 용역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용역에는 ▲29개 공공도서관의 고질적인 문제인 보존 서고 확보 ▲부산도서관 성격과 건립 기본 구상 설정 ▲부산 대표 도서관 예정 부지와 주변 환경 조사(건립부지 분석 등) ▲도서관 건립비용 산정 ▲예산 확보 계획 ▲차별화된 건축 외관과 기능적인 공간 구성 ▲부산 대표 도서관 인력 구성 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역 대표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광역 지자체가 설립 또는 지정해야 한다.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농협 부산지역본부는 설을 앞두고 국내 농축산물과 제수용품의 가격 안정과 지역 우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농협 부산본부는 오는 23~24일까지 이틀간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시중보다 10~30% 저렴하게 농산물 선물세트·제수용품 등을 부산시청 주차장에서 판매한다.

예년 직거래장터 개장 시 농축산품 타임세일과 사은품 증정행사도 마련하는 등 설 물가안정을 위해 무 배추 양파 사과 '배·계란' 등을 시중 가격보다 10~30%가량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또 우리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동판매차량을 배치해 오는 23일 하루만 한우를 최대 4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새누리당 서병수(왼쪽) 의원이 원도심 투어 첫날인 지난 19일 오후 중구 부평동 시장을 방문해 지역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서 의원은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민심을 잡아라"

서병수 의원 현장투어

현장 속으로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지난 17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실상 부산시장 선거전 출정식을 가진 데 이어 부산지역 현안과 시민들의 애로 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19일부터 현장 투어에 나섰다.

서 의원이 출판기념회 이후 곧바로 현장에 뛰어든 것은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공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자신의 정치 철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추후 본격적인 민생 투어에 앞서 부산지역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지난 19일 남포동·광복동·대청동 등 원도심 일원을 돌며 시민들로부터 도심재생에 대한 의견을 듣고, 상인들의 얘기를 통해서는 재래시장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용두산 대청동 일원의 창조경제 클러스터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체험을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내달 8일 2차 투어에서는 사상 스마트밸리 후보지 일대를 직접 돌아보면서 관계자들로부터 개발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대 일대에서는 대학가의 창조경제 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청년 활동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발전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

서 의원은 매월 2~3차례 현장투어를 통해 부산지역의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상인, 청년 직장인, 노인, 주부 등과 대화를 통해 애로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추후 국회 등을 통한 정책 개발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부산지역은 동부산과 서부산간의 격차가 크고 재래시장이 많은 데다 낙후된 산동네도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낙후 지역을 점차 없애고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현장 체험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하균 기자

market index <20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53.78 (+5.36)	515.99 (+1.53)	2.90 (변동없음)	1064.00 (+2.50)

뉴스&뉴스

생산자물가 15개월째 하락

●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으로 수입 가격이 낮아진 탓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4% 끌어졌다.

지난 2012년 10월 0.5% 하락한 이후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김현지기자

금소원 동양사태 소송 제기

●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20일 동양사태 피해자 779명이 참여한 공동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가 지원하는 첫 소송으로 금소원의 청구 예정 금액은 326억원 규모다.

금소원 관계자는 동양그룹과 함께 금융감독당국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국가 배상 책임도 향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소원은 1차에 이어 2차 소송 접수도 계속할 예정이며 다음달 피해자 구제 공청회도 개최한다. /김현정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8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죽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명돈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753-2100
독자센터 02)721-9811

한국소비자원은 캐시미어 코트를 가지고 있는 전국 성인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소비자의 구매 선호가 높았던 11개 신사복 브랜드의 캐시미어 100% 코

'캐시미어 100%'에 속은 신사들

트 및 코트형 재킷 중 SG세계물산의 '비쏘', 유로물산의 '레노마'의 함유율이 각각 84.9%, 90.2%에 지나지 않았다고 20일 밝표했다.

또한 다운재킷 코트는 마찰에 의해 상대적으로 쉽게 마모되고 질감의 색이 쉽게 은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LG패션, SG세계물산, 유로물산 등 3개 업체는 관련 제품을 전량 회수해 표시사항을 개선한 후에 재판매하거나 판매 중지할 예정이다. /유주영기자

美 매파 양 날개 "테이퍼링 빨리!"

연방준비은행 댈러스·필라델피아 두 총재 "현내 거품 걱자" 강조

Issue&View

양적완화 종료 언제쯤

/김현지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내부에서 올해 중 양적완화가 모두 종료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적완화 정책은 이달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돼 이변이 없는 한 올 연말에는 완전히 끝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결권을 행사하는 매파 성향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2명이 더 빠른 양적완화 축소를 밀어붙이고 있다.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양적완화가 모두 종료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플로서 총재는 최근 라살대학교 강연에서 "벤 버냉키 현준 의장의 계획보다 양적완화가 빠르게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테이퍼링은 매우 환영한다"며 "다만 양적완화 축소 규모가 더 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피셔 총재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첫 양적완화 축소 규모가 200억 달러 수준이어야 한다"며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된 것에는 만족하지만, 축소 규모가 더 커야 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FRB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탓에 일부 금융시장이 그 디덴텀보다 부풀려진 상태"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FRB의 정책이 '비어 고글 효과'(음주로 인해 상대방이 더 예뻐 보이는 효과)를 만들었다"며 "현재 증시의 채권 시장은 거품 현상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올해 안으로 모든 자산 매입을 끝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종료 시점, 올해 11월 전망"

경제 전문가들도 올해 말 양적완화 정책이 완전히 종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PNC 파이낸셜서비스의 스튜어트 호프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5~7번의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규모가 매번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될 것"이라며 "양적완화 정책을 완전히 종료하는 시점은 올해 11월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도 "오는 28~29일 개최되는 미국 FOMC에서 양적완화 추가 축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달 FOMC에서 양적완화 규모를 6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추가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며 "예상을 밑돈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FOMC의 경기 전망에 대한 신뢰가 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KB VIP라운지 수준 향상

KB국민은행이 기존 VIP고객을 위한 전용 공간인 VIP라운지를 PB센터 수준의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한 프리미엄 VIP라운지 '스타테이블 라운지'를 20일 전국 21개 영업점에서 시행한다.

기존 VIP라운지에서 제공하는 공간적 편의서비스 외에도 고자산 고객에게만 주로 제공됐던 맞춤형 PB전용상품을 판매해 보다 폭넓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지기자

2차 피해 당하기 전에… 롯데카드 재발급 행렬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내 롯데카드센터가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으려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M&A 호재 업고 상행선 타는 제약주

셀트리온 주가 탄력…일동제약 올들어 46% 상승

올해 국내 제약업종의 인수 합병(M&A)이 두드러지면서 관련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

먼저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주가는 올 들어 5만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세를 탔다.

올해 첫 거래일인 2일 셀트리온이 매각 주관사에 매수 희망을 표명한 기업들과 논의 중이라고 공시하면서 매각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여기에 임상시험 승인 소식이 가세하면서 9일 장중 4만9300원까지 올랐다.

셀트리온 주가는 지난해 4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자기 보유 지분 매각을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4만7000원대에서 2만6650원대로 곤두박질쳤다가 8월 주력 개발 품인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유럽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다시 장중 6만6706원까지 급등했다.

이후 3만원대까지 고꾸라졌다가 올 들어 상승 흐름을 타는 등 롤러코스터 주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동제약은 녹십자의 적대적 M&A 가능성에 연일 급등했다.

녹십자가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일동제약 지분을 14.01% 추가로 취득해 보유 지분율을 29.36%로 늘리고 경영에도 참여한다고 밝히자 주가가 곧바로 반응했다.

일동제약 주가는 지솟기 시작해 20일 현재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1만5000원대로 뛰어올랐다. 올 들어서만 46% 넘게 상승했다. /김현정기자

'일감몰아주기법' 회피…재벌들의 꼼수

계열사 합병·총수일가 지분 축소 등 통해 규제대상 제외 안간힘

삼성·현대차 등 재벌그룹 핵심 계열사 20곳이 다음달 시행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을 피하기 위한 꼼수 행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합병이나 총수 일가 가족 지분 낮추기 등을 시도하는 등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계열사 간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 이동은 내부 거래 규모 자체가 축소되거나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다.

재벌닷컴은 20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12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경영변동 사항을 조사한 결과, 20개사가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 감소 등의 수법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지나 갔다고 밝혔다. 또 삼성에버랜드 등 77개사의 경우 내부 거래 비율이 낮은 계열사 사업부를 인수하거나 내부 거래 비율이 높은 사업 부문은 자회사를 설립해 넘기는 방식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45.69%)로 있던 삼성SNS를 삼성SDS와 합병시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게 됐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대주주인 현대엠코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하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허창수 GS그룹 회장 친척이 대주주로 있던 STS로지스틱스와 승산레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인 신록개발과 부영CNI,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인 티시스와 티알엠도 계열사 합병을 통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의 친족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도시산업, 윤석민 태영그룹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태영매니지먼트도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 계열사 간 합병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수 일가족의 지분 축소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도 적지 않다.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과 장세욱 유니온스틸 사장 형제는 15%씩 지분을 보유하던 시스템통합(SI) 업체 디케이유엔씨의 지분 전량을 지난해 11월 81억원을 받고 유니온스틸에 매각해 규제를 피하게 됐다.

STX건설과 포스텍은 강자와 유상증자로 대주주던 강덕수 STX그룹 회장 가족의 보유 지분이 2% 미만으로 낮아졌고, 세아네트웍스는 이태성 세아홀딩스 상무 일가족이 지분 25.23% 전량을 세아홀딩스에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한라아이앤씨는 대주주던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지분을 모두 계열사에 넘겼고, 이수영 OCI그룹 회장 일가족은 삼광유리 지분을 20.79%에서 15.44%로 낮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동부씨엔아이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한 동부메탈과 동부하이텍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윤다혜기자

"와규 세트로 특별한 마음 전해요" 20일 서울 홈플러스 금천점에서 모델들이 와규 세트,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기부되는 김치 세트, 홈소믈리에 와인 등 이색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한우갈비 오르고 생선·과일 내려

품목·구입 장소에 따른 설 명절 선물비용 비교

올 설 선물은 전년에 비해 한우갈비세트 가격은 축산농가의 사육 두수 감소와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가 맞물려 비싸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수산물선물세트와 과일선물세트는 일본 방사능 여파에 따른 소비 부진과 공급량 확대 등의 원인으로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품목이라도 대형마트가 백화점에 비해 가격이 최대 46%나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일간 서울 시내 4개 대형마트 및 신세계백화점 등 3개 백화점에서 한우갈비세트 등 설 주요 선물용품(19품종 86품목)을 조사해 전에 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우갈비세트(찜·탕용, 1등급 이상, 1kg)는 지난해 평균 6만7190원에서 3.0% 상승한 6만9230원에 판매됐다.

한우의 사육 두수 감소로 작년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됐고, 수입갈비세트(청정우, 찜·탕용, 1kg)도 수입 물량의 부족으로 지난해보다 5.4% 상승한 평균 3만200원에 판매됐다.

수산물의 경우 참굴비(10마리, 23~25cm)는 지난해보다 11.4% 하락한 평균 29만3600원, 옥돔(3kg, 25~30cm)은 전년보다 14.6% 내린 25만9290원에 판매되고 있다.

과일은 배(1호, 7.5kg, 신고·원황)와 사과(1호, 5kg, 홍로·부사)가 각각 지난해보다 14.3%, 18.6% 하락한 7만7810원, 7만4420원에 판매되고 있다.

유통업계별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한우갈비세트(찜·탕용, 1등급 이상, 1kg)를 구입하는 데 대형마트에서는 평균 6만690원, 백화점에서는 7만776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22.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갈비세트(청정우, 찜·탕용, 1kg)도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12.1% 저렴한 2만5260원에 판매됐다.

참굴비(10마리, 23~25cm) 역시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46.8% 저렴한 20만3860원, 옥돔(3kg, 25~30cm)도 23.3% 낮은 22만51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일선물세트 배(1호, 7.5kg, 신고·원황)와 사과(1호, 5kg, 홍로·부사)도 대형마트에서 백화점보다 각각 38.1%, 18.0% 저렴한 5만9470원과 6만7040원에 판매됐다.

맞벌이 급여 많은 쪽 몰아서 공제

연말정산 절세 전략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직장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전략을 알아보자.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소득금액과 소득은 차이가 있다. 소득은 보통 세전 수입, 즉 매출이나 총 급여를 의미한다. 반면 연말정산 때 적용하는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예를 소득은 100만원이 넘어도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수혜 여부가 달라진다. 부부의 급여 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반해 급여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 금액을 분배하는 게 좋다.

이와 함께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민지기자

"아들아, 네차례" 다보스포럼 가는 오너 3세들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국내 재계 인사들이 오너 2세에서 3세로 바뀌어 주목받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 22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제44차 연차총회에 국내 재계 리더 30여 명도 참석해 현장을 누빌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재계 인사 면면을 살펴보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외에 대부분의 참석자 주력이 오너 3세로 바뀌었다.

우선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다보스포럼에 9년째 참석한다. 또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사위인 김재열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삼성을 대표해 참석한다. CJ그룹의 경우 재계 3세에 속하는 이미경 부회장이 참석해 한식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실장과 지난규 한화생명 사장, 방한홍 한화케미칼 사장도 한화를 대표해 참석한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삼남 조현상 효성 부사장과 구자영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사진우 SK플래닛 대표 등도 참석한다. /이재영기자

"세계 스마트폰 40% 한국산"

올해 1분기 점유율 전망

올 1분기 전 세계에서 팔린 스마트폰 10대 중 4대가 한국산일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삼성·LG전자가 사상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20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제조사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36.2%(9200만 대), LG전자가 5.9%(1500만 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해 각각 사상 최대치에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4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11년 1분기에 16.2%로 출발해 약 3년간 20~30%대를 기록해왔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분기 42%, 3분기 42.1% 등 4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국현기자 knyoo@

삼성·LG 스마트폰 세계점유율 전망

	삼성전자	LG전자	합계
2013년 1분기	32.4	4.9	37.3%
2분기	32.5	5.3	37.8
3분기	35.0	4.1	38.7
4분기	31.8	4.4	36.2
2014년 1분기	36.2	5.9	42.1
2분기	35.7	6.3	42.0
3분기	36.0	6.1	42.1
4분기	31.4	5.8	37.2

자료: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 연합뉴스

적자왕국된 닌텐도, 왜?

간편하고 비용 저렴한 모바일 게임에 치이고 캐주얼 라인업 국한돼 엑스박스와 PS4에 밀려

2008년 순이익 2790억 엔, 2009년 순이익 4081억 엔.

앞의 수치는 닌텐도, 뒤는 도요타의 기록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두 회사지만 닌텐도는 게임기와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고 도요타는 글로벌 넘버원 자동차 메이커다.

두 회사의 매출은 비교가 민망할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만 실속이라 할 수 있는 순이익은 의외로 격차가 크지 않다. 그만큼 닌텐도는 돈 긁어 모으기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해왔다.

5년이 흐른 2013년, 닌텐도는 3년 연속 적자가 확실시된다. 당초 1000억 엔 영업이익을 예상했지만 지난 18일 350억 엔 적자로 예상치를 변경했다.

2년간의 부진의 늪을 탈출할 것이란 투자자의 기대를 깨버린 탓일까. 닌텐도는 20일 주가가 개장 초반 전거래일 대비 18.50%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당했다.

닌텐도의 위기는 더 커질 수 있다. 콘솔 '위유'를 900만 대 판매하겠다고 자신했던 닌텐도는 목표치를 30% 수준인 280만 대로 크게 낮춰 잡았고 휴대용 게임기 3DS 판매 목표 역시 1800만 대에서 1350만 대로 떨어뜨렸다.

닌텐도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은 비콘솔 게임 탓이다. '위' 시리즈는 전용 콘솔에 전용 타이틀을 장착해야 즐길 수 있지만 온라인게임이나 모바일게임은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소에 상관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

비용도 문제다. '위'는 타이틀을 포함해 40만~50만원이 들지만 온라인게임은 사실상 가정마다 비치된 PC에서 매달 2만원가량에, 모바일게임은 누구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적게는 1000원이면 게임을 할 수 있다.

'위'의 게임 라인업도 유저의 외면을 받고 있다. '슈퍼마리오' 등 동물의 숲'과 같은 아기자기하고 캐주얼한 게임이 많아 소비층이 제한돼 있고 이탈 가능성이 크다.

이와타 사토루 닌텐도 대표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진 연봉 삭감을 한 상태다. 그는 최근 "슈퍼마리오를 모바일 버전으로 만드는 자원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 중"이라며 변신을 예고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80세도 가입되는 실버암보험

라이나생명보험은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암 발생자는 인구 10만 명당 남자 412.4명, 여자 397.7명으로 2009년 대비 4% 증가했다. 특히 75~79세의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1805명으로 전체 평균인 405.1명과 비교했을 때 4배가 넘는 높은 수치다.

이렇게 고령자에게 암보험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을 반영해서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연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했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만기 암보장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박정원기자 pjw@

kt금호렌터카 새해 이벤트 풍성

국내 렌터카 업계 1위 브랜드 kt금호렌터카(대표 이희수)는 고객의 기분 좋은 새해 출발을 응원하고 풍성한 설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1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청마 해를 기념해 말띠 고객이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 요금 3000원을 추가 할인받을 수 있고, 이벤트 기간 중 kt금호렌터카 홈페이지에 신규 회원 가입하면 차량 대여 시 사용 가능한 45% 할인쿠폰이 매주 금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또 kt금호렌터카 이용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중 차량 대여 시 주중 최대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도 진행한다. 렌터카 상품 이용 횟수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을 둬 1회 이용 시 주중 60%, 2회 이용 시 주중 70%, 3회 이상 이용 시 주중 80%의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t금호렌터카 홈페이지(http://www.ktkumhorent.com/)를 참조하거나 콜센터(1588-1230)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준기자 kmj@

IMF시절 돌아간 '금융 취업문'

수익악화에 신규채용 '꽁꽁'…계획 있는 기업도 작년의 절반 규모

외환위기(IMF) 시절 못지않은 고용 한파가 몰아치면서 구직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수익 악화에 허덕이는 금융권이 취업문을 닫은 데다 20%가 넘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취업문은 바늘구멍만큼 좁아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회사들이 신규 인력 채용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계획을 발표한 하나은행은 올 대졸 신입을 지난해 절반 수준인 100여 명만 뽑을 방침이다. 지난해 대졸자 200명을 뽑은 국민은행도 점포 축소를 반영, 올해는 채용 규모를 줄일 전망이다.

채용 횟수 축소를 검토 중인 업체도 있다. 지난해 상·하반기로 나눠 423명을 뽑은 기업은행은 올해 채용을 한 차례만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증권업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대졸 신입직원 21명을 뽑은 우리투자증권, 지난해 49명을 선발한 대우증권 등은 올해 채용계획의 윤곽도 잡지 못했다. 9월에 입사원서를 접수하는 삼성증권은 올해 신입직원 채용을 "두 자릿수로 축소할 계획이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금융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상·하반기 53명을 뽑은 예금보험공사와 정년인턴 수료자 57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주택금융공사는 올해는 30명 안팎의 인원만 뽑을 예정이다.

경기 악화에 시달리는 일반 기업들도 채용 사정은 나아지기 힘들 전망이다.

이날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91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 인력 구조조정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가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라고 답했다.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한 이유로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38% 복수 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32.9%), '잉여 인력이 있어서'(26.6%) 등을 거론한 기업도 많았다. 구조조정 규모는 평균 13%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 기업 인사담당자는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 통상 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고용장려금, 세제 혜택 등 상응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직장인 넷 중 셋 '오피스 우울증'

직장인 4명 중 3명은 일을 하며 우울함을 느끼는 일명 '오피스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7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5%가 오피스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오피스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직장 내 인간관계'가 16%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회사가 비전이 없다고 느낄 때'(13.8%), '연봉, 복리후생 등의 낮은 처우'(14.2%),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14%), '과도한 업무량'(11.1%),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10.9%), '체력이 부족할 때'(10.7%), '회사 분위기나 문화가 나와 맞지 않을 때'(8.9%) 등이 거론됐다.

오피스 우울증 증상으로는 '두통 및 집중력 저하'가 23.1% 응답률로 가장 많이 호소됐다.

이 밖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직 고민'(20.8%), '불면증'(12.7%), '사소한 지적에도 예민하게 반응'(10.6%), '출근하는 것 자체가 싫음'(9.7%), '퇴근 후 주말이 즐겁지 않음'(9.2%), '일 처리가 잘못되면 자기 비하가 심해짐'(6.9%)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2.6%나 됐다.

/정윤희기자

삼성맨의 조건 '스토리 자소서'

'탈스펙' 채용제도 대응법

'탈스펙'을 선언한 삼성그룹에 입사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

최근 삼성그룹이 신입사원 채용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채용 사이트 삼성커리어스, 삼성 블로그, 삼성전자 리크루팅 페이지, 삼성경제연구소(SERI)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일 이들 사이트에 소개된 비법에 따르면 '삼성맨'이 되려면 자기소개서에서 진실·솔직한 스토리를 보여줘야 한다.

우선 온갖 수식어로 화려하게 꾸민 자기소개서보다 진심이 담긴 간결한 소개서가 선택받을 확률이 높다. 지원 기업에서 간절히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면 소개서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바란다는 설명이다.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씩 떠오른 경험을 기업의 인재상에 매칭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한 가지 비법이다.

삼성은 따뜻한 면접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면접위원들이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난해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면접 준비로 고난도 서적을 보는 것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잘 표현할 방법, 긴장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는 인문학은 사람과 사회, 기술을 이어주는 학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인문학을 다독(多讀)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이 걸려있다. 삼성직무능력검사(SSAT)에서도 인문학 분야 역시 관련 항목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은 열정 몰입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학습·창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열린 마음으로 소통·협력하는 인재를 원한다"며 "삼성 관련 사이트에 소개된 인사 노하우를 참조하면 달라진 채용제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롯데마트, 신학기 가방 최대 40% 할인 20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 가방매장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가방을 고르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학생 가방 100여 개 품목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신학기 책가방 대전'을 서울역점, 잠실점 등 90여 개 점포에서 진행한다. /연합뉴스

LTE 속도전쟁, 이젠 4배다!

KT 이어 SKT·LG유플 관련 기술 개발 성공해

이동통신 3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속도 경쟁에 불이 붙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0일 잇따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LTE 대비 4배 빠른 3밴드 LTE-A 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1개의 광대역 주파수 20MHz에 2개의 10MHz폭 주파수를 묶는 3밴드 주파수집적기술(CA)로 최대 300Mbps 속도를 자랑한다.

3밴드 LTE-A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800M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22초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 데 3세대(3G)에서는 약 7분24초, LTE는 약 1분25초, LTE-A는 43초가 소요된다.

다만 아직 해당 기술을 일반인들이 체험하기란 불가능하다. 300M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칩셋과 해당 칩셋이 장착된 단말기 출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올해 말 해당 칩셋을 장착한 단말기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말기가 출시되는 대로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4'에서 3개 광대역 주파수를 연결해 20+20+20MHz 3밴드 CA 최고 속도인 450Mbps 속도의 무선 통신도 세계 최초로 선보일 계획이다.

앞서 KT 역시 지난 14일 "최대 300Mbps 속도로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20MHz+20MHz CA도 개발을 완료한 상태"라며 "'MWC 2014'에서 처음으로 이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전에 이통 3사는 3배 빠른 광대역 LTE-A 및 4배 빠른 3밴드 LTE-A 기술을 놓고 서로 '세계 최초'라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서비스 출시 이전이지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구직자 취업 콤플렉스 외국어·학벌 1·2위에

구직자 10명 중 8명은 취업 콤플렉스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올해 취업 및 이직을 준비하는 구직자 93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4%가 '취업 콤플렉스가 있다'고 응답했다.

취업 콤플렉스 1위로는 '외국어 실력'(56.5%)이 꼽혔다. 이어 학벌(39.7%)과 자격증 유무(27.0%), 최종 학력(22.1%) 등이 거론됐다.

부문별로는 경력직 구직자(75.8%)보다 신입직 구직자(81.0%)에서 취업 콤플렉스가 있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특히 경력직 구직자는 전공(15.3%)에서 취업 콤플렉스를 느낀다는 답변이 신입직 구직자(12.5%)보다 높았다. 신입직 구직자는 인턴십 경험(22.2%)이나 대외활동 경험(17.5%), 공모전 수상 경력(14.6%), 학점(15.4%) 면에서 취업 콤플렉스가 있다는 응답이 경력직 구직자보다 많았다.

/정윤희기자 unique@

전월세 거래량 1년새 3.7% ↑

아파트 1.1% 감소… 지난해 137만여건 기록

■ 연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대비 3.7% 늘어난 137만여 건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013년 연간 총 주택 전월세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137만3172건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0% 증가한 91만3093건, 지방이 5.3% 증가한 45만8604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48만3562건(4.4%↑)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강남 3구는 8만1298건(5.9%↑)으로 파악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4만2079건으로 전년과 견줘 1.1% 감소했다. 이에 반해 아파트 외 주택은 73만1098건으로 8.4% 늘었다. 전세가가 고공 행진을 벌이면서 아파트보다 비용 부담이 적은 아파트 외 주택이 전월세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1만78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늘었다. 수도권이 7만2313건, 지방이 3만8476건으로 각각 3.0%, 2.9% 증가했다.

아파트가 3.6% 빠져 5만5561건을, 아파트 외 주택은 10.6% 늘어 5만5228건을 기록했다. 계약 유형별로는 전세가 6만6155건으로 59.7%를 차지했지만 월세도 4만4634건으로 40.3%나 됐다.

주요 단지의 순수 전세 실거래가(계약일자 기준)는 서울 강남권은 강보합세, 수도권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4.99㎡는 11월 6억원에서 12월 6억5000만원으로 전셋값이 올랐고, 같은 기간 용인시 죽전동 새터마을 84.00㎡는 2억8000만~2억8500만원에서 2억7000만~3억600만원으로 조정됐다. /박선옥기자

수익형 부동산 잘나가네

4050 세대 '소득절벽 10년' 대비해 구입 늘어나는 추세
매달 고정현금 매력… "최근 수익률 하향세 투자 신중을"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10년 가량의 시간 차이를 보이면서 이른바 '소득절벽 10년'을 대비하기 위한 수익형 부동산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공급 증가로 수익률이 예전만 못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상품도 없기 때문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점도 은퇴자들에게는 매력적이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55~63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다. 하지만 이들이 노후 생활의 1차 생계 수단인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은퇴를 하고도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이에 은퇴 전 미리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소득절벽 10년을 준비하는 40~50대가 느는 추세다.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일대에서 분양 중인 '당산역 효성해링턴 타워'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자의 절반이 넘는 52%가 50대 이상, 27%가 4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 관계자는 "노후 대비 목적으로 계약을 하는 수요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직접 방문해 예상 수익률은 물론 일대 상권과 인구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들어 수익률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무턱대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입지와 배후 수요는 기본이고 분양가와 계약 조건 등도 따져봐야 한다"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 혜택을 주는 단지 위주로 노려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효성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 분양 중인 '당산역 효성해링턴 타워'에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최대 규모인 734실로 구성됐으며, 지하철 2·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과 도보 30초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다. 여의도까지 3분대, 강남까지 2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 앞서 공급된 인근 오피스텔보다 3000만원 정도 분양가를 낮췄다.

대우건설에 광교신도시 CD1-3블록에 공급한 '광교 센트럴 푸르지오시티'는 500만원 1차 계약금 정액제와 함께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실시한다. 분양가도 1억원대 초반부터 시작해 초기 부담을 줄였다. 전체 1712실 규모의 대단지 오피스텔로 오는 2016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경기도청역(가칭)과 인접하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센트로드' 상가를 선보인다. 계약금 10%, 잔금 90%(계약 후 12개월) 조건으로 선납 시 최대 7.5%의 할인이 적용된다. 또 2년간은 10%의 임대 수익을 지원한다. 코오롱글로벌, ADT캡스 등의 기업이 입주하는 동북아무역타워, G타워, IBS타워, 포스코건설 사옥 등과 인접해 있다.

/박선옥기자 sso9825@metroseoul.co.kr

KCC, 인테리어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로 변경 KCC는 20일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HomeCC)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홈씨씨인테리어(HomeCC인테리어)'로 변경했다. 홈씨씨는 '홈 크리에이션 센터'의 약자로 집의 새로운 인테리어를 창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는 인테리어와의 연상을 강화하기 위해 홈씨씨에 인테리어를 결합한 새로운 BI로 리뉴얼했다. /KCC 제공

"美 테이퍼링 부동산 시장 영향 미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가 국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테이퍼링에 따른 금리 상승은 주택 가격과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의 크기는 1% 미만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충격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로 비금융권 대출을 축소해 가계부채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한국감정원은 20일 '미 양적완화 축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서는 테이퍼링이 집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은 1% 미만으로 추정했다. 주택 가격은 자신의 변동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94%로 가장 컸으며, 전세·월세·국내총생산(GDP)·이자율 등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은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이러한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431조원이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은행 대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 위험이 현실화하면 LTV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금융권 대출을 축소해 가계부채의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행복주택 부지 선정 지역의견 적극 반영

앞으로 행복주택의 부지 선정에 앞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 후보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발굴해 행복주택 후보지를 건의하면 후보지 검토회의를 구성,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추진 희망 여부와 사업 여건 등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공식적으로 사업이 제안되면 주택·도시·교통·교육·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사업 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구려 사업계획을 보완·조정하게 된다. /박선옥기자

공인중개사 43% "올 분양시장 나아질 것"

강남권 재건축 유망 첫손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4명은 올해 분양 시장이 작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전국의 자사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425명을 대상으로 '2014년 분양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2.6%(181명)가 '수도권·지방 모두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수도권·지방 모두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 28.5%(121명) ▲수도권은 나아지고 지방은 더 어려워질 것 17.2%(73명) ▲수도권·지방 모두 작년보다 어려워질 것 8.0%(34명) ▲수도권은 어려워지고 지방은 나아질 것 3.8%(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분양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강남권 재건축'이 38.6%(164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가 각각 17.6%(75명) ▲위례신도시 14.6%(62명) ▲기타 8.9%(38명) ▲동탄2신도시 2.6%(1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분양 단지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는 '입지'가 30.9%(263명)로 1위를 지지했다. 이어 ▲분양가 28.4%(241명) ▲교통 21.5%(208명) ▲교육 8.4%(71명) ▲브랜드 7.1%(60명) ▲평면 0.8%(7명) 등이 선택됐다.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분양가 인하'라고 답변한 비율이 36.9%(157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양도세 한시 감면 연장 등 세제 혜택 30.4%(129명) ▲전매제한 폐지 17.4%(74명) ▲상한제도 개편 14.4%(61명) ▲신평면 개발 0.9%(4명) 순으로 선택됐다. /박선옥기자

비번만 바꿔도 해커 당황

인터넷상 개인정보 관리법

포털 등 홈페이지마다 비밀번호 다르게 설정 해외 통한 접속 걱정땐 로그인 국가 '한국' 설정

최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인터넷 개인정보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돕는 포털 및 인터넷 커뮤니티 개인정보 관리법을 소개한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밀번호는 영문자·숫자·특수 기호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변경 주기는 짧을수록 적절하다.

아울러 본인 계정으로 의심스러운 접속 시도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일 본인이 아닌 해외 및 특정 IP의 로그인 시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차단 가능을 설정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

네이버에서는 해외 로그인 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페이지를 띄우고 있으며 다음도 해외 지역 IP 및 특정 IP에 대해 차단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서 접속할 일이 없다면 로그인 국가를 대한민국으로만 허용해 해외 로그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포털은 여러 PC에서 로그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로그인을 차단하는 특정 IP를 등록해 원치 않는 접속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 밖에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시 정보 공개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필수적 정보' 이외 인적 사항을 입력하거나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제3자에게 개인정보 공유 동의 칸에 체크를 하지 않는 식이다. 모든 항목에 동의를 해야 회원가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선택적 동의 항목'은 체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편 출처가 불확실한 무선 인터넷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또는 핫스팟을 이용한 인터넷뱅킹은 삼가야 한다.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 전화번호 또는 과도한 사생활 게시글을 올리지 않는 것도 상식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용웅 매니저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복잡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회원정보 관리를 수시로 확인해 의심스러운 로그인 기록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운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KT "지니TV도 즐기세요" KT는 미국·일본·대만 등 전 세계 48개국에서 제공 중인 스마트폰 전용 앱 '지니 케이팝(genie K-POP)' 의 론칭 1주년을 맞아 케이팝 특화 영상 서비스인 '지니 TV'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KT 제공

SK플래닛 제공

T쇼핑·모카트리·U+쇼핑 모바일로 '지름신 모시기'

이통3사 회원 혜택 경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모바일 쇼핑족' 마음 훔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T쇼핑', KT는 '모카 트리(MoCa Tree)', LG유플러스는 'U+쇼핑' 등을 통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2030세대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T쇼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TV 홈쇼핑뿐 아니라 신개념 '비디오 쇼핑'까지 제공하며 시선을 끌고 있다. 비디오 쇼핑이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광고 형식의 홍보 영상이나 기존 TV 홈쇼핑 방송 편집본 등 짧은 동영상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좌우로 페이지를 넘기며 다양한 홈쇼핑 채널로 이동해 여러 상품군을 확인할 수 있고, 약 800개의 제품 특성을 상품을 비디오 쇼핑 방식으로 제품 특성을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KT는 모카 트리 앱으로 모바일 쇼핑업체의 다양한 이벤트 정보를 제공해 제휴사 사이트 연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특히 쇼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할뿐 아니라 여러 판매 정보를 비교해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알뜰한 쇼핑이 가능하다. 모카트리 앱은 ▲커머스·금융 서비스의 쿠폰·할인 혜택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생활플러스' ▲다양한 테마의 특가 상품과 제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테마샵' ▲다양한 제휴 이벤트를 한 번에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LG유플러스는 U+ 쇼핑 앱과 'LG생활건강 특가몰' 운영을 통해 차별화를 뒀다. U+ 쇼핑은 이마트·신세계와 손잡고 다양한 쇼핑 정보 제공 및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통신사에 관계없이 LTE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LG생활건강 특가몰을 운영, 각종 상품을 LG 임직원들과 동일한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설 명절을 맞아 이달 중 특가몰을 통해 5만원 이상 결제 시 통신요금 1만원 할인, 10만원 이상 결제 시 통신요금 2만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쇼핑 이용자들이 늘면서 통신 사업자들 역시 손잡고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y@

영어회화 학습기 '뇌새김 토크' PC연동 서비스

전국 학습자들과 실력을 겨루며 '뇌새김'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다.

교육 콘텐츠 선문기업 위버스마인드는 스마트 학습기 '뇌새김'과 PC를 연동한 '뇌새김 토크 웹(Web)'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뇌새김 토크 웹은 원대일 대화형 시뮬레이션 영어회화 학습기인 '뇌새김 토크'와 미국 본토 영어 수업과 학습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PC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다. '뇌새김 토크 학습기'와 '뇌새김 토크 웹' 사이에 학습 현황과 학습 점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집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의 학습 상황을 학부모가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뇌새김이 평가한 회화 점수를 통해 전국 사용자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웹 버전 출시를 기념해 뇌새김 토크 구매자들에게 뇌새김 토크 웹 3개월(19만9000원)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며 기존 뇌새김 토크 고객들에게도 신규 고객과 같이 3개월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미라기자 kmiee@

25일 롤챔스 윈터 결승전 판도라TV서 HD생중계

최고 인기를 모으고 있는 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윈터(롤챔스 윈터) 결승전을 HD 생중계로 볼 수 있다.

판도라TV는 25일 열리는 롤챔스 윈터 결승전을 생중계한다고 20일 밝혔다.

총 상금 2억7000만원이 걸린 이번 결승전에는 대회 2연패에 빛나는 SK텔레콤 T1 K와 압도적인 승률의 삼성 오존이 올라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결승전이 열리는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7000석 유료좌석은 매진된 상태다.

판도라TV는 이번 결승전 현장의 생생한 긴장감을 전 세계 롤챔스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풀HD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특히 '롤챔스 여신' 조은나래(사진)가 중계를 맡을 것으로 알려져 게이머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1월 운동 오버했다간 12월까지 골골

덤벨 들던 男 추간판 삐끗 체중 줄인 女 골절 질환…새해 운동 적당히 하세요

올 한 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 다이어트 등 건강 신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무리한 새해 다짐은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나를 위한 운동이나 다이어트가 신체와 척추에 치명적인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자신의 컨디션에 맞는 건강한 운동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헬스하다 등산하다 "악"

새해 다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은 바로 정기적인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지만 개인의 운동 능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운동은 오히려 척추와 관절에 큰 부상을 가져올 수 있다.

먼저 헬스를 할 때는 덤벨이나 역기와 같은 운동을 조심해야 한다. 척추를 구성하는 추체와 추체 사이에는 충격을 완화하는 신체 부위인 추간판이 존재하는데 무거운 것을 과도하게 들면 이 추간판이 새다 굴곡 상태가 되면서 추간판을 둘러싼 섬유륜은 비집고 나오게 된다. 소위 허리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는 것이다.

또 새해를 맞아 시작하는 대표적인 운동인 등산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기온과 기압이 낮은 겨울에는 등산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은 놀라지 않게 해야 하며 뻣뻣해진 척추와 관절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등산 후 다리나 허리가 아프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온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는 게 현명하다.

◆단기간 무리한 다이어트 금물

남자들에게 운동이 새해 목표 1순위라면 여자들에게 새해 목표 1순위는 다이어트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영양 결핍과 함께 골절과 같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단기간에 많은 체중을 감량하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육과 관절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에너지 섭취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골 손실이 발생하며 이 상태에서 병행되는 운동이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허리와 무릎 등의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물론 철저한 계획 아래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점이다.

조보영 연세바른병원 대표원장은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과 다이어트를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 무턱대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학습을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간단한 습관 개선만으로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부터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카타르·에티하드·싱가포르 항공 특가 행사

항공사들이 새해를 맞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먼저 카타르항공은 20일부터 22일까지 134개 전 노선에 대해 이코노미석은 물론 비즈니스석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항공권은 오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에티하드항공은 항공권을 예약 ... 영국 맨체스터 시티 풋볼 클럽 트레이닝 기회를 선사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다음달 28일까지 항공권을 예약하는 고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1군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의 트레이닝 세션과 선수 및 시니어 코칭 스태프들과의 만남, 에티하드스타디움 비하인드 더 신 투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싱가포르항공은 호텔 예약 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스라인 그룹의 자회사인 아고다와 제휴를 맺고 모든 고객에게 아고다의 전 세계 호텔 특가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약은 싱가포르항공의 지정 예약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미세먼지, 혈관도 노린다

'중국발 공포' 대처 요령

중국발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2월 미세먼지 고농도 횟수가 2012년보다 7배 이상이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더욱 잦아지고 있다. 이런 미세먼지에는 중금속과 오염물질,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혼합돼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관까지 침투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미세먼지의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코 속이나 기도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미세먼지가 체로 들어가면 천식과 기관지염, 폐암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또 미세먼지가 혈관에 침투하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된다. 이럴 경우 미세먼지가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뇌졸중과 뇌경색, 뇌혈전,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로 인한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주의해야

이와 함께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도 늘고 있다. 외출 후 눈에 간헐적 통증이 나타나고 눈곱과 충혈,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속 오염물질이나 화학물질 등이 눈에 들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결막염은 각막 궤양이나 각막 혼탁 등으로 이어져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건조한 겨울에는 이물질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은 "환절기에 발병률이 높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최근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선글라스나 보안경으로 눈을 보호하는 것이 좋으며 결막염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전문의들이 알려주는 임신·출산 정보

미즈메디병원이 출간 예비엄마 지침서 화제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1.23명이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난임이 많아졌고 육아 비용도 꾸준히 늘어나 출산율이 감소한 탓이다.

이렇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이제는 단 한 명의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를 낳기 위한 임신 전 계획과 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미즈메디병원이 예비 엄마를 위한 지침서 '똑똑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출간했다.

◆예비 엄마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았다!

제목 그대로 완벽한 준비를 통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예비 엄마들을 위한 책이다.

기존의 도서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책은 임신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필수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미즈메디병원의 의료진 열다섯 명이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들을 추려내 답을 담았다. 또 전문의들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엄마들이 알아야 할 주의 사항, 기존 임신·출산 가이드북에서는 볼 수 없는 난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임신 계획 중이라면 금연, 금주를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초음파 검사는 안전한가요?" "임신 중에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등 임신부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백과사전처럼 전문 지식이 나열돼 있는 것도 아니고 주수에 따라 임산부가 해야 할 일을 단순하게 정리한 책도 아니다.

이 책은 아이를 가지려는 이 시대의 예비 엄마·아빠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말을 주고 있는 것이다.

/황재용기자

NCSI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HAPPY SHAKE!
올 겨울이 처음처럼 부드러워집니다
흔들어 마시는
물이 좋은 소주
처음처럼
HAPPY WATER
100%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모아베이비 22~24일 세일

유아동복 전문 브랜드 모아베이비는 22~24일 모아베이비 본사 3층 특별행사장에서 '패밀리 세일'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류·출산용품 내의·유모자 및 여벌 필수품인 키시트까지 유아 관련 전 품목을 최대 80%까지 저렴하게 선보인다. 또한 다이지 카시트 및 순성산업 카시트를 한정 수량만 특가에 판매한다. 행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착순에 한해 임말을 지급한다. 문의: 080)538-3247

리복 '인스타 펌퓨리' 재출시

글로벌 브랜드 리복의 리복 클래식의 헤리티지인 '펌프 퓨리' 탄생 20주년을 기념해 '인스타펌프 퓨리 오리지널'을 출시한다.

리복(shop.reebok.co.kr)은 '과거에서 온 미래'라는 타임캡슐 콘셉트로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펌프 퓨리 중 6가지 이미지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우유 넉넉한 '우유 나눔'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사진 왼쪽·www.seoulmilk.co.kr)이 경기도 지역 저소득층과의 우유 나눔을 위해 지난 17일 경기도청에 1000만원 상당의 우유 2만 2000개를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된 우유는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조합원들로 구성된 낙농축산계원의회가 각각 500만원씩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 일대 사회복지단체 6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올드한 무스탕, 세련된 부활

올겨울 대세 패션 아이템 '무톤 재킷' 스타일 눈길

몇 해 전부터 인기를 끌었던 무톤 재킷이 올겨울에도 대세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일명 '무스탕'이라고 불리는 무톤 재킷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블랙·브라운 컬러를 메인으로 한 라이더 스타일이 주를 이뤘으나 올해는 한층 부드러운 실루엣과 화려해진 컬러로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보이핏으로 멋스럽고 클래식하게

엉덩이를 덮는 보이핏의 무톤 재킷은 남성적인 매력이 물씬 풍긴다. 특히 계절상 두꺼운 옷을 입기 마련인데 재킷이 오버 사이즈인 만큼 옷을 많이 껴입어도 부담 없어 착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피어리·보브 등 주요 패션 브랜드에서도 보온성과 멋스러움을 동시에 갖춘 오버 사이즈 무스탕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무톤 재킷 특유의 거친 소재로 디자인됐지만 기존과는 달리 얇은 두께로 선보이 가볍지만 따뜻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심플한 디자인을 강조해 클래식한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네크 라인은 버클을 잠가 하이 네크로 연출하면 개성 있는 스타일은 물론 보온 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

동보이 관계자는 "보이핏의 무톤 재킷은 레깅스, 스키니진과 같은 딱 붙는 하의를 매치하는 게 좋지만 모노톤의 원피스와도 의외로 잘 어울린다"고 귀띔했다.

◆독창적인 디자인·컬러로 색다르게

이번 시즌에는 블랙·브라운을 비롯해 버건디·민트·그레이 등 다채로운 컬러의 무톤 재킷이 매장을 시로잡고 있다. 올겨울 트렌드 컬러인 버건디는 투박한 무톤 재킷에 생동감을 전하고, 민트·베이지 등 밝은 색상은 묘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와 함께 독창적인 디자인의 무톤 재킷이 대거 등장해 한층 개성 있는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폴앤조는 둥근 네크 라인에 소매 부분의 컬러 블록이 돋보이는 아이템을 내놨다. 핑크·민트 등 부드러운 파스텔톤과 라운드 네크 라인이 여성스러움을 부각시켜준다. 특히 내피에 주머니를 달고, 소매이도 색을 입혀 뒤집어 입을 수 있도록 했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무톤 재킷은 티셔츠 위에 무심하게 걸치기만 해도 멋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하는 매력 만점 아이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원기자 jwl@metroseoul.co.kr

K2 디터처블 재킷 입고 눈꽃산행 떠나요 20일 서울 성수동 K2 본사 대강에서 사내 모델들이 디터처블 재킷 출시를 기념해 '눈꽃산행' 추천 아이템 을 선보이고 있다. K2의 디터처블 재킷 '캘란'과 '켈릭'는 기능성 소재 위디와 솜덧다운 내피로 구성돼 있어 겨울 야외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아이템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2 제공

신원 이탈리아 '페슈라' 론칭

신원이 이탈리아 슈즈 브랜드 '페슈라'를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페슈라는 1999년 이탈리아 디자이너 안드레아 벡지올리가 론칭한 브랜드다. 대표 아이템인 '머미 슈즈'는 운동화 형태의 틀에 끈을 둘둘 말아서 신는 신발로 일명 '붕대 신발'로도 유명하다.

페슈라 제품은 더 코너, 에이랜드, 레스모어 등 33개 신발 편집숍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19만원대.

멋짱들 모여라! '패션 서포터스' 손짓

소비자와 소통수단으로 젊은 아이디어 반영위해 브랜드마다 선발 잇따라

패션업체들이 브랜드 홍보를 담당할 서포터스 선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젊은층을 마케팅 활동에 적극 참여시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올리비아 하슬러는 다음달 15일까지 스타일 에디터스 1기로 활동할 20~30대 여성 10명을 모집한다.

스타일 에디터스는 올리비아 하슬러 신상품 체험기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홍보대사 겸 패션 에디터다. 이들은 3개월간 매월 2회 콘텐츠를 발행하고 미스터리쇼퍼로도 활동한다. 활동 혜택으로 신상품과 상품권 등이 주어진다.

캐주얼 브랜드 GGPX는 26일까지 20~30대를 대상으로 제1기 글램디바 를 10명 내외로 선발한다. 최종 발탁된 글램디바에게는 신제품과 매월 활동비를 지급한다.

SPA 브랜드 탑걸도 패션에 관심이 많고 SNS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대학생과 일반인들 가운데 서포터스를 뽑는다. 탑걸 서포터즈는 브랜드 온라인 홍보는 물론 각종 프로모션에 참여해야 한다. 26일까지 탑걸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e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연승어패럴 홍보실 관계자는 "최근 주요 업체들이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패션 서포터스'를 활용하고 있다"며 "패션과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젊은층은 실무를 경험하고, 회사 측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마케팅에 반영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팔도 블로그에 12가지 새 맛

팔도는 기업 블로그 '온종일 맛있는 생각뿐'(www.paldoblog.co.kr)을 새롭게 개편하고, 다양한 라면 요리법을 제공하는 '달콤한 레시피'를 신설했다. 이곳엔 '불낙볶음면'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요리법 12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불낙볶음면'과 국내에서 가장 매운 라면인 '틈새라면'을 섞어 먹는 '불새라면', '한끌 짜장면'과 섞어 먹는 '불짜장' 외에도 '불낙쏘야', '불낙퀘사디아' 등이 있다. 특히 '불새라면'(불낙볶음면+틈새라면)은 상표권을 출원해 놓은 상태다.

tvN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의 '해태' 역으로 10년 만에 무명 설움을 벗고 스타덤에 오른 손호준(30)은 막상 만나자 드라마에서 보여준 맛깔나는 전라도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로 또박또박 이야기했다. 실제로 전라도 출신인 그는 10년 전 배우가 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 직후 사투리를 고쳤다고 했다. '응사'를 마친 지금은 해태에서 벗어나 또 다른 드라마와 뮤지컬·영화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10년 무명생활 막노동하며 버텼죠"

'응답하라 1994'로 스타덤

손호준

◆ '응사'와는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응사'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요즘 그 누구보다도 바쁘다. 현재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에 출연하고 있고, 18일부터는 다음달 16일 첫 방영될 KBS2 새 드라마 '태양은 가득히' 촬영도 시작됐다. 또 이달 말에는 보아·이정재 등 톱스타들이 총출동한 영화 '빅매치'의 촬영에도 합류해 그야말로 전방위 활약을 펼친다.

여러 분야를 동시에 해서 부담이 적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뮤지컬에 많은 생각이 쏠려있는 듯 보였다. 난생 처음 해보는 뮤지컬이라 걱정이 많기 때문이다. 극중 주인공 요셉 역할을 맡아 13일 첫 무대에 올랐다.

"첫 공연 때 압박감이 커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극단 생활을 해서 연극 무대에 서본 경험은 있지만 너무 오래전인 데다 연습 시간이 부족해 다른 배우들에게 폐가 될까봐 걱정이 커요.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노래를 들으며 연습하고 있답니다."

'태양은 가득히'에서는 한지혜의 극중 이복동생인 한영준 역할을 맡아 '응사'의 '해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아픔을 지닌 부잣집 자제 역할을 연기해 고급스러운 매력을 뽐낸다.

"평소 좋아하는 조진웅 선배와 함께 연기하고 싶어 출연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농담으로 네가 그런 고급스러운 게 되겠느냐고 말하더라고요. 실은 제대로 부잣집 아들이긴 했는데······ 하하하. 해태든 예민 역이든 나의 일부를 연기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번엔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 그룹 티카온으로 데뷔

쉴 시간도 없이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망설임 없이 "괜찮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푹 쉬었다. 바쁜 지금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그토록 원해던 일을 할 수 있으니 아주 편하다"면서 10년 무명의 설움을 털천 것을 기뻐했다.

얼굴이 생소한 탓에 신인처럼 알려졌지만 2007년 데뷔한 그룹 티카온의 프로젝트 앨범에 참여해 연예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영화 '고사' 시리즈, '바람'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활동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축구 유망주였지만 고등학생 때 교회 집사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교회 연극 무대에 오르면서 연기에 재미를 느꼈고, 이후 극단에 입단하며 본격적으로 연기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연기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연기만큼 좋아하는 일도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생계는 꾸려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는 했었죠. 오디션을 보러 다녀야 해서 장기로는 못 하고 단기로 할 수 있는 막노동을 주로 했었어요."

바쁜 일정 탓에 설 연휴도 편하게 쉬긴 힘들지만 귀향 계획은 세웠다. "10년 전 서울에 올라온 후로 명절에 고향에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부모님 뵐 면목도, 과일 바구니 하나 사갈 돈조차 없어 지금까지 내려가지 못했다"면서 "이번엔 꼭 효도하러 내려가려고 한다"며 웃었다.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자인/박은지

동방신기 7집 '텐스' 재킷, 사진 13일 오사카 돔에서 열린 빅뱅 콘서트, 2PM이 표지모델로 나선 일본 패션지 캔캔(왼쪽부터).

보이그룹 '빅3' 해외 인기 "오~놀라워라"

기요계 빅 3가 신드롬이라 경쟁 체제에 접어든 가운데 각 사를 대표하는 베테랑 가수들이 해외에서 치솟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간판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는 이달 초 발표한 정규 7집 '텐스'로 국내외 차트를 휩쓸고 있다. '텐스'는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1월 25일자)에서 2위를 차지했고 전 세계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미디어 트래픽이 운영하는 유나이티드 월드 차트에서 비욘세, '겨울왕국' OST에 이어 3위에 등극했다.

빌보드는 이 앨범은 "마이클 잭슨, 브루노 마스의 팬들도 만족할 앨범"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신나라레코드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타이틀곡 '섬씽'으로 4개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동방신기 빌보드 차트 2위
2PM 日 유명 패션지 모델
빅뱅은 日 6대 돔투어 성공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의 2PM은 한국 연예인 최초로 일본 유명 패션지 캔캔의 표지 모델로 선정됐다. JYP는 "남성 아티스트가 표지 모델이 된 것도 2001년 일본의 가수 겸 배우 다키자와 히데아키 이후 12년7개월 만이다"고 설명했다.

29일 일본 정규 3집 '제네시스 오브 2PM'을 발표할 이들은 타이틀곡 '스텝 바이 스텝'과 수록곡 '메라-고-라운드'로 각각 6일과 13일 레코초크 벨소리 차트 1위를 차지했다.

2PM은 오는 27일 나고야에서 아레나 투어에 돌입해 일본에서 인기를 이어간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주자인 빅뱅은 해외 가수 최초로 일본에서 6대 돔 투어를 치러 총 77만1000여 명을 동원하며 절정의 인기를 확인했다.

한편 SM·YG·JYP는 엑소·위너·갓세븐 등 신예 남성 아이돌 그룹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19금' 섹시로 돌아온 레인보우 블랙

'차차' 쇼케이스 열어

7인조 걸그룹 레인보우가 화끈한 섹시 콘셉트로 무장한 유닛 레인보우 블랙(김재경·고우리·오승아·조현영)을 선보였다.

20일 스페셜 앨범을 발표한 레인보우 블랙은 이날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가요계 파란을 예고했다. 깜찍 발랄한 콘셉트로 주로 활동했던 것과 관련해 고우리는 "귀여운 콘셉트가 더 부담스러웠다. 섹시한 색깔이 우리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고 활동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멤버 구성에 대해 오승아는 "3명의 1988년생 맏언니들은 연륜에서 묻어나는 성숙한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막내인 현영이는 아찔한 매력의 소유자다. 몸매가 이쁘고 남자 팬도 많다"고 설명했다.

레인보우 블랙 멤버들이 20일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차차'에 맞춰 뇌쇄적인 안무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타이틀곡 '차차'는 발라드의 대가인 윤상이 선보이는 레트로풍의 디스코 댄스곡으로 은근하게 도발하는 당당한 가사가 인상적이다. '싫습니다 좋습니다 말을 좀 해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게 올 밈에' 등 반복되는 노랫말에 맞춘 포인트 안무가 화제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걸스데이·달샤벳 등 여성 그룹들의 겨울을 녹이는 노출 경쟁이 치열한 것과 관련해 김재경은 "'차차'가 노래만 들으면 경쾌하지만 퍼포먼스와 함께했을 때 반전의 매력이 있다. 우리는 (그들보다) 평균 연령이 높아 진정성 있는 섹시한 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유순호기자

차승원, 싸이·2NE1과 '한지붕'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차승원(사진) 등 연기파 배우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세력을 넓혔다.

YG는 20일 "차승원이 가수 싸이·빅뱅·2NE1과 한솥밥을 먹게 됐으며 YG 소속 배우 정혜영·구혜선·유인나 등과 한 식구가 됐다"고 밝혔다.

차승원은 YG 식구들과 인연이 깊다. 빅뱅의 멤버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최승현과 영화 '포화속으로'에서 호흡을 맞췄고, 유인나와는 MBC '최고의 사랑'에 함께 출연했다. 차승원은 절친들의 응원 속에서 YG에 새 둥지를 틀어 다양한 작품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YG의 양민석 대표는 "YG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 제작업에도 향후 시너지 창출과 전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연기자 매니지먼트도 자연스레 강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최근 선보이고 있는 '위너TV' 등 YG가 직접 만드는 방송 콘텐츠의 제작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YG는 음반 제작·가수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연기자 매니지먼트 분야 강화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차승원과 함께 현재 MBC 수목극 '미스코리아'에 출연 중인 베테랑 연기자 임예진, KBS2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방송에서도 맹활약 중인 연기파 배우 장현성도 YG패밀리에 합류했다.

/양성운기자 ysw@

김병만 '주먹쥐고 소림사' 온다

노력의 아이콘 김병만이 극한 생존기를 넘어 소림 무술에 도전했다.

SBS가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와일드 예능 프로그램 '주먹쥐고 소림사'(사진)에서 김병만을 필두로 장우혁·육중완·동준·니엘은 소림사에 입문해 절대 내공의 고수들에게 취권·당랑권·소림5권 등 전설의 무술을 전수받고 왔다.

이들은 각기 다른 목표와 로망을 가지고 소림사의 제자가 돼 고수의 강인함과 인내를 요하는 실전 훈련법을 연마하며 무술 사부에게 각각의 권법을 지정받아 소림사의 정통 무술에 도전했다.

뿐만 아니라 딸림·달마동 전 등 소림사의 전설적인 장소에서 특훈은 물론 소림승이라면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한다는 새벽 예불까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소림사의 비밀스러운 일상을 24시간 카메라로 가감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중국 허난성 덩펑시 숭산에 있는 무술의 본관 소림사에서 예능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촬영을 허가받은 '주먹쥐고 소림사'는 30일 방송된다.

/장병호기자

엄정아 현 소속사와 재계약

배우 엄정아(사진)가 현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재계약을 체결해 10년 의리를 과시했다.

판타지오 안현승 본부장은 20일 "엄정아씨와 2011년에 이어 또다시 재계약을 체결했다"면서 "10여 년 동안 함께해오다 보니 그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남다르다. 함께해온 시간만큼 서로에 대한 익숙함과 존중을 바탕으로 파트너이면서 조력자가 돼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다져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정아는 그동안 드라마 '로열패밀리' '내 사랑 나비부인' '내 이웃의 아내' 등에 출연하며 도시적이고 우아한 이미지로 40대 대표 여배우로 사랑받고 있다.

현재는 영화 '키드'를 차기작으로 정하고 촬영에 한창이다.

/박즈현기자 tak0427@

'변호인' 29일 천하 끝

1000만 관객 돌파 후 '겨울왕국'에 1위 내줘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사진)이 '변호인'의 5주간 수성세운 박스오피스 정상을 탈환했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은 지난 17~19일 103만6102명을 모아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16일 개봉한 이 영화는 누적 관객 수 120만2319명을 기록했다.

'겨울왕국'은 국내 역대 흥행 1위 애니메이션인 '쿵푸팬더 2'(4일 만에 167만3640명·최종 506만 명)와 2위 '쿵푸팬더'(4일 만에 126만5715명·최종 465만 명)의 뒤를 이어 3년 만에 개봉 첫 주 120만 명 이상을 동원했다.

'변호인'은 지난 주말 1000만 관객 돌파의 함께 흥행 기세가 수그러들고 있다. 주말 동안 51만75?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수 1016만511?명을 기록했다. 할리우드 영화 '잭 라이언: 코드네임 섀도우'는 419개 관에서 21만731명을 불러모아 3위에 올랐고 '용의자'는 18만3383명을 모아 4위를 차지했다. 이 영화의 누적 관객은 406만3757명이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주연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12만9296명을 모아 5위, 정재영 주연의 '플랜맨'은 11만6395명을 동원해 6위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suno@

정우 '바람' 재상영 극장 깜짝 방문

팬들 감동의 도가니

배우 정우(사진)가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깜짝 만남으로 화답했다.

정우는 18일 압구정CGV에서 열린 영화 '바람'의 재상영 극장에 상영 전 예고 없이 등장해 팬들을 감동하게 했다. 인근에서 CF 촬영을 하던 중 매니저를 통해 재상영 소식을 알게 됐고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격해 깜짝 방문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상영은 정우의 팬들이 그의 출연작 '바람'을 재상영하도록 CGV 무비꼴라쥬 측에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정우는 지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그린 2009년 개봉작인 이 영화로 대종상 신인상을 받은 바 있다.

정우는 영화 시작에 앞서 이 같은 재상영을 추진한 팬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에 극장 안은 온통 환호성으로 들어찬 것은 물론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정우 측 관계자는 "정우씨의 팬 사랑은 특별하다. 진심으로 큰 감사를 느끼고 있다. 갑자기 전한 소식이었는데 정우가 CF 촬영 중 쉬는 시간을 쪼개 극장을 찾았다"며 "팬들에게도 정우씨 본인에게도 이날의 만남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우는 tvN '응답하라 1994' 종영 후 차기작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진영기자 1a@0427@

기황후 시청률 20% 재진입 하지원 로맨스·모성애 연기 돋보여

"출산신 찍다 기절할 뻔"

50부작의 반환점을 눈앞에 둔 MBC 월화극 '기황후'가 하지원(사진)의 애절한 로맨스와 모성애 연기로 시청자들을 눈물 젖게 하며 시청률 20% 재진입의 성과를 거뒀다.

사내 같던 기승냥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기까지 전문 배우 못지않은 무술 연기를 선보인 하지원은 20일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극중 신분이 낮아 고생을 많이 했다. 액션 연기보다 최근에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연기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혼절 직전까지 갔던 것 같다"고 고충을 드러냈다.

이어 "감기에서 10cm 정도 되는 얼음을 깨고 그 안에서 연기를 했다. 거기서 연기를 하는데 온몸이 마비되면서 내 몸이 얼음이 되는 것 같더라. 굉장히 극한 상황의 감정을 연기하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하지원이 맡은 기승냥은 고려의 왕 왕유(주진모)의 아이를 출산하는 등 역사와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하지원은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는지 찾아듣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운을 뗀 후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가정이다. 이 내용을 드라마에 갖고 와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극적으로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궁 밖으로 나왔는데 승냥이가 궁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재미를 주기 위해 아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현재 '기황후'는 초반 논란과 관계없이 로맨스와 정치 싸움에 집중하며 매회 숨 막히는 전개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는 "인물 간의 정치적 관계가 끊임없이 뒤처지고 매회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에 배우들조차 시나리오를 기다린다"며 "이 같은 전개를 시청자들도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장윤기자 yswl@metroseoul.co.kr

'테이큰' 리엄 니슨 이번엔 고공 액션

'논스톱' 내달 27일 개봉

'테이큰' 시리즈의 히어로 리엄 니슨(사진)이 화려한 고공 액션으로 돌아온다.

다음달 27일 개봉하는 영화 '논스톱'에서 그는 탑승객 전원이 용의자인 가운데 최악의 테러를 막아야 하는 미국 항공수사관 빌을 연기했다. '테이큰'에서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해 지심에서 시투를 벌였던 그가 이번에는 고공에서 테러 용의자를 찾기 위해 멈추지 않는 액션 본능을 내뿜는다.

20일 최초로 공개된 스틸에는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사상 최악의 테러를 암시하는 장면들이 눈에 띈다. 20분이 지날 때마다 탑승객을 1명씩 살해하겠다는 테러리스트의 메시지를 받은 빌은 탑승객 누구도 믿지 못하고 수색하는 장면에서 긴장감과 함께 강한 카리스마를 뿜어낸다.

탑승객들의 긴장감 넘치는 표정과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날아가며 총을 쏘는 리엄 니슨의 모습에서 폭발적인 맨몸 액션을 기대하게 만든다.

/유순호기자

23세 제니퍼 로런스 최연소 아카데미 3회 노미네이트

영화 '아메리칸 허슬'로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제니퍼 로런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최연소로 3회 노미네이트돼 화제다.

로런스는 3월 2일에 열릴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 후보로 올랐다. 이로써 올해 스물세 살인 그는 최연소로 3회 이상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되는 신기록을 세웠다.

앞서 2011년 영화 '윈터스 본'으로 스무 살에 처음 여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돼 수상했고 올해도 영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으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바 있다.

과거 최연소 3회 노미네이트의 기록은 스물일곱 살에 그 영광을 차지한 케이트 윈슬렛이었다.

특히 로런스는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하면 두 번 연속 수상한 최연소 배우로도 기록될 예정이다. '아카데미 전초전'으로 불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이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해 아카데미 수상이 유력시되고 있다.

희대의 범죄 소탕 작전에 스카우트된 사기꾼들과 그들을 끌어들인 FBI 요원의 치밀한 사기극을 그린 '아메리칸 허슬'에서 로런스는 희대의 사기꾼 어빙(크리스천 베일)의 아내 로잘린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는 다음달 20일 개봉된다.

/박진영기자

metro HongKong

metro Brazil

버스 카드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

브라질 남부의 포르투알레그레시가 안면 인식을 통해 버스카드 사용자를 구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탑승객의 얼굴을 기록했다가 등록이 끝난 카드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동일 인물인지를 판독하는 것. 메트로폴리탄시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목적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카드 부정 사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회사 측은 연말까지 약 2000대의 버스에 안면 인식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metro Russia

Петербуржцы мечтают иметь богатых соседей

"집 살 때 이웃들 지위·재력 고려"

최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주택 구입의 필수 요건 중 하나가 이웃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회사 마리나 아게예바는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주택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며 "일부는 여러 채의 주택을 한번에 구입해 주변에 공원과 전용 숲 등을 만드는 등 토지를 넓게 쓰면서 자신과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소수의 이웃을 가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metro France

주민 둘뿐인 마을 3월 시장선거 한명은 재선 도전

프랑스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이 단 두 명인 시골 마을이 주목받고 있다.

미디피레네 지방 투숑 인근의 이 마을은 오는 3월 23일과 30일 두 명의 주민을 두고 시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체 선거인 명단에는 17명의 주민이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수는 두 명뿐이다.

이 가운데 한 명인 조세 구시는 지난 2008년 이미 시장으로 선출 된 바 있다. 투숑에서 수영 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올해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시 후보자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과 함께 올토빔에 사는 그는 "여기서는 장을 봐야 하는 것 외에 25km를 다시 달려 비트로 가야 한다.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이 좋다. 그래서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 후보자 없어도 여러 번 연임하기 힘들어

매주 월요일마다 근무를 위해 시청에 가는 그는 "마을이 작다고 얕보면 안 된다. 여기도 대도시만큼 많은 서류가 쌓여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한 명이 여러 번 연임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수천 유로의 예산을 가지고 대규모 숲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청 건물을 보수하는 등 관리해야 하는 프로젝트도 많은 상황. 오는 3월 새롭게 당선되는 시장은 관광 분야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힘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필립 롤 기자·정리=정주리 번역기자

암투병 중 127만번 바느질

中여성, 아들딸 학비 마련하려 폭 6.5m 십자수 제작 · "22m 새작품 완성할 수 있게 3년 더 살았으면"

콜록콜록 낮은 기침 소리가 낡은 집에서 새어나온다. 한 여성이 긴 십자수 천 앞에서 일분일초가 아깝다는 듯 빠른 속도로 수를 놓고 있다. 야오바우즈(姚保芝)의 집에서 매일 벌어지는 풍경이다.

올해 38세인 야오바우즈는 1999년 왕이자오(王以昭)와 결혼한 뒤 함께 산둥 탄광에서 일했다. 왕이자오는 일터에서 남성 못지않게 광석을 캐고 수레를 끄는 아내를 자랑스러워했다. 두 아이가 태어나고 그는 집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2006년 이 가정에 불행이 닥쳤다.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그에게 의사는 유방암 진단을 내리며 "당장 절제수술을 하지 않으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비싼 수술비 때문에 그는 약물치료를 선택했다. 치료를 받으면서 몸도 약해졌다. 남자처럼 일하던 여장부는 10kg짜리 쌀 한 포도 못 드는 몸이 됐다.

가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고민하던 야오바우즈는 2009년 2월 뉴스에서 우연히 초대형 십자수가 고가에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구이저우에서 10여 명의 여성이 1년 동안 폭 6m가 넘는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 십자수를 만들어 수십만 위안에 팔았다는 것.

다음날 그는 2800위안을 들여 폭 6.5m의 청명상하도 도안과 바느질 재료들을 사와 십자수를 놓기 시작했다. 이날부터 그는 매일 6시에 일어나 새벽 1시에 잠들기 전까지 거의 17시간씩 수를 놓았다. 결국 야오바우즈는 2012년 7월, 3년 6개월 만에 청명상하도를 완성했다.

그가 완성한 청명상하도는 폭 6.5m, 길이 0.85m의 대형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사람 684명, 동물 96마리, 집 122칸, 가마 88채, 배 25척, 나무 124그루가 등장하며 바늘이 127만 번 왔다 갔다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수집가가 20만 위안에 작품을 팔라고 야오바우즈를 찾아왔다.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야오바우즈는 "수술을 받아봤자 어차피 오래 살 수 없다. 어린 아들과 딸에게 뭔가를 남기고 싶다. 나중에 아들딸이 내가 세상에 없더라도 이 작품을 팔면 대학 갈 걱정은 없다"며 작품을 팔지 않았다.

2012년 8월 그는 청명상하도 도안을 또 샀다. 이번에는 폭이 22m다. 여윳돈이 없어 친구들에게 빌려 천을 샀다. 그는 "현재 6m 정도를 완성했다"면서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만 더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 기자

명문 구단 위한 KIA의 조건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신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가 다음달 중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라운드 조성, 스탠드, 전광판 등을 끝마쳤고 내부 마감공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주말마다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도 엿보이지만 '친환경 최첨단'이라는 수식어를 달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모기업인 기아자동차는 신구장 건립에 300억원, 2009년 우승의 선물이었던 전용훈련장에 250억 원을 투자하며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막강한 인프라를 팀에 선물했다.

공은 야구단으로 넘어갔다. 굳지의 인프라 구축은 이에 걸맞은 콘텐츠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1년 해태를 인수한 KIA는 명문이 아니었다. 1회 우승에 그쳤고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도 없다.

즉 진정한 명문이 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 우선 건실한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꾸준한 성적을 이루며 관중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면서도 경영 실적도 올리는 선진적 마케팅 기법이 필요하다.

선수단 내부도 존중과 배려, 예의와 신사의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오로지 땀으로 말하고 단단한 결속으로 뭉친 팀을 만들어야 한다. 팬과 구성원이 자부심을 갖는 명문 팀을 만들기 위해 KIA는 이 구단의 미래를 담을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설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추진해야 하고 인내심도 필요하다. 명문구단이 되려면 10년 이상의 장기적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모습 드러낸 광주 새 야구장 /연합뉴스

쇼트트랙 안현수 경계령

러 귀화 빅토르 안 개명
소치 마지막 리허설 무대
유럽선수권 4관왕 올라
한국 금메달 비상 걸려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29·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유럽선수권대회 4관왕에 올랐다.

안현수는 20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2014 유럽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남자 1000m와 3000m 슈퍼파이널에 이어 5000m 계주까지 이날 걸린 3개의 금메달을 모두 휩쓸었다. 전날 남자 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안현수는 1500m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4관왕에 올랐다.

안현수는 순위 포인트 102점을 얻어 세먼 엘리스트라토프(러시아·60점)를 멀찍이 제치고 종합 우승까지 차지했다.

안현수가 20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2014 유럽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남자 3000m 슈퍼파이널에서 경주를 펼치고 있다. /AFP 연합뉴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인 안현수는 부상, 빙상연맹과의 갈등, 소속팀의 해체 등이 겹쳐 방황하다가 2011년 러시아 국적을 얻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벼른 그는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두 차례 500m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기량을 뽐내고 있다.

특히 소치 올림픽의 마지막 리허설 격으로 치른 이번 유럽선수권대회에서 절정에 오른 컨디션을 과시해 소치 올림픽의 강력한 메달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김성준기자 ysj@metroseoul.co.kr

오승환 "이대호에 설욕"

한신 타이거스의 오승환(31)이 한국에서 이대호(31·소프트뱅크 호크스)에게 당한 부진을 일본에서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20일 일본 산케이스포츠에 따르면 오승환은 "이대호와 동갑내기 친구이고 일본에도 익숙한 좋은 타자니 대전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오승환은 "한국에서는 이대호가 더 강했지만 2년간 갈고닦았다. 주자가 있을 때 안타를 내주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오승환은 이대호를 상대로 한국에서 통산 피안타율 0.320(25타수 8안타), 3피홈런을 기록하는 등 성적이 좋지 않았다. /송순호기자 suno@

프로농구 전적 20일

우리은행	12	21	13	20	66
국민은행	15	13	19	18	65

4강행 U-22 축구대표팀 "우승 자신있다"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22세 이하(U-22) 챔피언십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이광종(50) 감독이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감독이 지휘하는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지난 19일 오만 무스카트 시이브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U-22 챔피언십 8강전 시리아와의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백성동(주빌로 이와타)과 황의조(성남)의 연속골로 일찌감치 2-0 리드를 잡은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마카드 리안의 비매너 플레이에 한 골을 내줬지만 승패에 관계없이 4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경기 후 이 감독은 "2-1로 승리했지만 더 많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건 아쉽다. 그래도 승리를 한 만큼 선수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전반전에 스피드 면에서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전방 압박을 시도했다. 후반전에는 상대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나와 우리는 스리톱으로 변형해 수비 쪽으로 좀 더 치중했다"고 설명했다.

4강에 올라선 이광종 감독은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전력상으로 한국이 아시아 상위 레벨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는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4강전 상대인 이라크 혹은 일본 모두 전력이 비슷한 만큼 어떤 팀이라도 상관이 없다. 우리 팀을 정비해서 4강전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리아를 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한 한국은 이라크와 일본 간의 8강전 승자와 오는 23일 오후 10시 결승 진출을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친다. /채성오기자

당신의 사생활은 안녕한가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국제가전제품박람회(CES) 2014에서 스마트 장신구가 주목받았다. 디자인 전문기업 CSR이 셀리나(보석 세공 전문기업)와 협업을 통해 선보였던 '자체 발광형 유기물질 목걸이(OLED PENDANT)'는 스마트폰과 연결돼 문자메시지, e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일부 기능 사용이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입은 의상이나 감정에 따라 색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는 패션 소품으로서의 액세서리가 한층 섬세하게 기안화된 디지털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한편 디자인은 기능을 넘어서는 디자인을 표방한다. 엘마 전 내놓은 새로운 형태의 수화번역기는 이들의 정신을 잘 담고 있다. 이 기기는 청각장애인이 수화로 표현하는 내용을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음성이나 문장으로 전달해준다. 반면 비청각장애인이 이야기하는 음성은 문장으로 변환돼 청각장애인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전송된다. 문장 역시 수화 디어어그램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청각장애인과 비청각장애인 사이의 소통 간격을 메워줄 획기적 제품임에 틀림없다.

폭스바겐은 뮤지션 언더월드와 함께 '플레이 더 로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운전자의 경험을 음악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이었다. 즉 운전자가 주변을 사각하면 언더월드 음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용 앱이 가속도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 속도와 분당 회전수(RPM)를 수집한다. 이후 수집된 정보는 뮤지컬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으로 생성된다. 자동차를 악기로, 운전자를 작곡가로, 드라이빙을 디제잉으로 변환시킨다는 발상의 놀라운 프로젝트였다.

최근 들어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이 무섭다. '미시노이드(기계화되어가는 인간)'란 단어가 자주 언급된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장치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데이터가 수집될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는 어느 기업가의 서버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사용된다는 점이다. 소비 행태에 대한 자료 수집이 무의미할 정도다. 소비자의 무의식마저 수집,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편리함이라, 첨단이라 어루어진 당신의 사생활은 안녕한가. /산업디자인학박사(www.dx.co.kr) 대표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ju4000.com

임용고시 두번째 낙방에 낙담 관운 미약하지만 내후년 합격

평유 남자 87년 9월 17일 음력 밤 12시

Q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번이나 떨어져서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재도전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 공무원시험이나 임용고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같은 종류의 시험으로 운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은 단순히 사주에 어떤 오행만 갖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 시험 보는 달이나 일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귀하의 명조(사주 구조)에서는 관운이 미약하게 돼 있으며 2016년 운이 들어옵니다. 위축된다면 우선 학원 강사를 해도 같은 교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미래의 꿈은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만큼 이룰 수 있음을 믿고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스스로 길흉을 만들어가십시오. 자신의 사주팔자를 스스로 요제해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합격 시기를 앞당기십시오.

제대로 된 직업 구하고 싶은데 조상 잘 모시고 제사 꼬박꼬박

달봉사무 남자 73년 11월 20일 양력 오전 8시

Q 친구의 부동산 이벤트 보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시원치 않습니다.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또 재혼하고 싶은데 현재를 가능할까요?

A 생일이 경금(庚金) 사주가 추운 겨울에 태어났으며 사주 뿌리에 수(水)로 국(局)을 이뤘으니 신약한 사주인데 미약하나마 편인을 용신으로 써야 하니 상관용인(傷官用印) 격이군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 필자의 '사주 속으로' 코너를 통해 역학 공부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고 어떤 분은 스크랩까지 한다고 하니 적어봅니다. 부동산 이벤트와 같은 유통 사업이 문서를 다루고 계약하는 일입니다만 재물운이 없으니 현실에서 바라는 상황대로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귀하는 조상님들께 제사를 잘 지내야 일이 잘되는 사주입니다. 남자에게 재물과 여자는 같이 따라다니게 돼 있는데 2015년 배우자를 만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

1/21 火 일출시각 07:43 일몰시각 17:4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5.co.kr

지역	기온
서울	-6/-1
청주	-6/3
대전	-6/1
전주	-6/1
광주	-4/1
제주	2/3
강릉	-2/3
울릉도	-1/0
대구	-5/3
포항	-3/3
울산	-3/4
부산	-2/5

눈이 내린 후 얼면서 빙판길이 많아졌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것을 삼가야 하며 특히 노인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삼성서울병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5	3		7	6	9	
6			1		2			8
3		2				5		1
9	2						1	5
7	5						6	3
4		3				1		9
2			9		5			4
	6	9	4		1	8	2	

		3			9			
6		8			7		3	
	2			6				
				8			6	4
8			3		4	2		
	9		2	1				
							7	5
	1		4			6		
				7			9	

스도쿠 정답

[illegible]

문제 제공 - 보누스
슈퍼스도쿠 픽스터 (마음이 따뜻해 리더십도 커요)

신점[神占] 운세 1월 21일(음 12월 21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이웃사람의 지혜라도 빌려라. 60년생 돈 문제는 돌발 사태에 대비하라. 72년생 재미에 속으면 힘을 뺀다. 84년생 판세는 좋았으니 재능을 맘껏 굴려라.

소 49년생 금전이 잘 풀리는 배우자 재운에 유념하다. 61년생 기대가 감탄으로 바뀐다. 73년생 겸손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라. 85년생 하고 싶은 새 일이 생긴다.

호랑이 50년생 못마땅해도 목소리 낮춰라. 62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회복할 기회 잡는다. 74년생 문서 일 서두르지 마라. 86년생 감각적 마인드가 빛을 발한다.

토끼 51년생 절실하지 않으면 구하지 마라. 63년생 기도한 일은 성사된다. 75년생 시대착오적인 독단은 빨리 버릴수록 유리. 87년생 싫어도 동한 표정은 금물이다.

용 52년생 남쪽으로 가면 길한 일이 많다. 64년생 부하에게 시달리는 즐거운 하루. 76년생 간섭간섭 말하면 큰 화 부른다. 88년생 사랑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뱀 53년생 오만한 이웃 부부에 불쾌하다. 65년생 서두르면 일 늦는 거위의 배 가른다. 77년생 꼼수로 인한 부메랑 조심. 89년생 물관한 사람과 화해할 일 생긴다.

말 42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54년생 등권은 이익에 부합하니 유하라. 66년생 찜찜한 일은 물러나는 게 좋다. 78년생 추진 중인 일에 한턱이 들어 기분 최고.

양 43년생 사랑 얻으려면 스킨십 보여라. 55년생 뭇한정할 가족 있어 든든. 67년생 껄끄러운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라. 79년생 전통만 집착하면 잃는 게 많다.

원숭이 44년생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약이다. 56년생 포기는 이르니 한탄만 하지 마라. 68년생 최선 다하면 실수도 봐준다. 80년생 연인의 격려에 피로 사라진다.

닭 45년생 목이 른 사람이 먼저 샘 파는 법이다. 57년생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은 없다. 69년생 공허한 잡념은 거둬들여라. 81년생 귀인이 나타나 힘이 솟는다.

개 46년생 버릴수록 행복이 채워진다. 58년생 주변의 충고 받아들여라. 70년생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82년생 연인이 우놀한 마음에 등불을 켜준다.

돼지 47년생 음식으로 탈 날 조심하라. 59년생 인생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다. 71년생 직장 일은 싫어도 참아라. 83년생 남이 추천한 공연을 보면 포감이 생각난다.